



2014년 잡지인 신년교례회 “청마의 힘찬 기지로 새롭게 도약하자”

한국잡지협회(회장 남궁영훈)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잡지산업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2014 잡지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잡지인 신년교례회에는 잡지관련 단체장 및 학계 관계자, 잡지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14 잡지인 신년교례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섭 민주당 사무부총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광무 원장, 한국전문신문협회 김시중 회장, 한국잡지학회 이광재 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전영표 상록문화정보연구소 이사장 등 귀빈, 잡지관련 단체장, 학계 관계자를 비롯해 잡지발행인 130여명이 참석했다.

남궁영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에는 잡지협회가 진행하던 계속사업 외에도 발행인복지연금제도 시행, 근무관리 시스템 전산화로 업무효율화, 회원윤리규정 개정, 구매관리운영규정 신설, 코리아매거진페스티벌 첫 시행, 잡지학회 창립 등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했다. 올해 역시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매거진포털사이트 구축, 다양한 교육 시스템 구축, 한류잡지 해외지원, 잡지발행인 세미나 개최,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점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해 청마(靑馬)의 힘찬 기지로 잡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잡지인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축사에서 “희망의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정부도 잡지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달라.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난 2013년은 정치실종의 원년이었다. 올해는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길 바라며, 잡지인 여러분도 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잡지산업의 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잡지산업의 진흥 없이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잡지산업이야말로 문화의 원형이며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잡지진흥법을 만들었지만 잡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잡지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 남궁영훈 회장과 함께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와 축사에 이어 내외빈 기념촬영, 기념떡 커팅, 김수달 한국잡지협회 전회장의 건배제의, 만찬 등이 이어졌다.Ⓞ